



0~2세 학습공동체 8차 결과 보고서

놀이로 자라는 아이들



무지개품은 교사들의 모임
(다양성과 성장을 포근히 품어내는 공동체)





8차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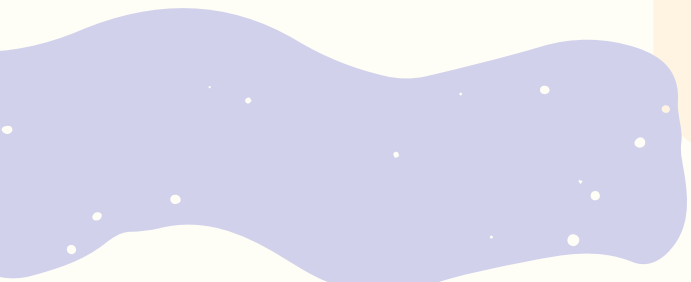
일시 : 2026년 1월 26일 1시

장소 : 어린이집 교사실

참석자 : 박성은 교수님,

강성자(2세반), 안효정(1세반),

김명옥, 진인국(0세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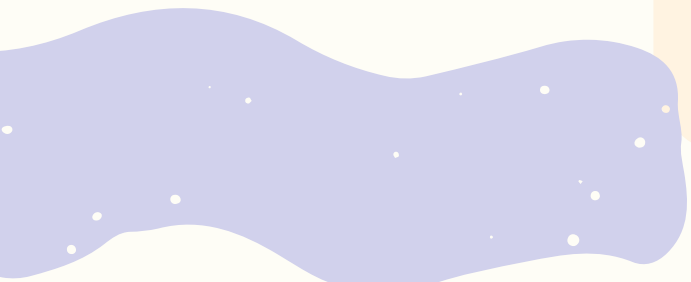




모임색깔

무지개팀 학습공동체는
동료 장학을 평가나 비교의 과정이 아닌,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전문적 성찰의 과정으로 인식한다.

이번 8차 모임은
1~7차까지의 학습공동체 운영을 돌아보고,
동료 장학의 본질과 방향을 다시 점검하며
앞으로의 실천을 정돈하는 데 의미를 둔 시간이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

01 학습공동체 운영에 대한 성찰 (교사 학습공동체와 AI 활용 논의)

- 학습공동체 운영 과정에서 AI 자료 활용 경험을 공유함
- AI는 참고 도구일 수 있으나, 정보의 신뢰성과 맥락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교사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확인함
- 자료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현장에 맞게 검토·선별·재구성하는 힘이 교사 학습공동체 안에서 더욱 요구됨을 나눔

02 동료 장학의 의미 다시 보기 (관계적 고민과 인식의 전환)

- 동료 장학은 '잘했는지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배우는 동료가 되고자 하는 과정임을 재확인함
- 말하는 의도와 듣는 교사의 마음 사이에 간극이 생길 수 있음을 인식함
- 존중의 범위, 제안과 평가의 경계에 대해 솔직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됨

함께 나누는 이야기

03 관찰과 나눔 방식에 대한 논의

- 관찰일지는 활동의 결과보다 영아가 집중하고 머무는 장면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형식적인 칭찬 위주의 나눔에서 벗어나 실제 상호작용의 맥락과 교사의 선택 이유를 읽는 나눔의 중요성을 공유함
-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공동 관찰은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객관적이고 안전한 나눔을 가능하게 함을 확인함

04 동료 장학의 어려움과 개선 방향

- 동료 장학은 교사에게 심리적으로 '드러내는 경험'이 될 수 있음을 공감함
- 잦은 장학보다 한 학기 또는 1년에 한 번이라도 깊이 있는 장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함
- '왜 그렇게 지원했나요?'와 같은 질문 중심의 장학이 교사의 성찰을 돕는다는 데 의견을 모음

함께 나누는 이야기

05

교사 학습공동체의 목표 재정립

- 학습공동체는 교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과정임
- 목표는 '생각을 맞추는 결과'가 아니라 생각을 맞추어 가는 과정임을 다시 확인함
- 동료장학시 개인 수업 평가가 아닌, 영아의 발달과 교육과정을 현장 속에서 함께 풀어내는 실천 중심 공동체임을 재정립함

06

향후 과제 및 다음 계획

- '배움 읽기' 관찰일지를 활용한 지속적인 관찰·성찰 운영
 - 놀이 영상 기반 공동 나눔을 통한 놀이지원 실천 강화
 - 교사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보완하기 위한 외부 상호작용 컨설팅 및 동료장학 연계
 -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교사의 강점은 확장하고, 단점은 지속적으로 보완
- ▶ 교사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현장 실천 구조 마련

무지개팀의 성장이야기

이번 8차 모임은
학습공동체 운영을 점검하고,
동료 장학의 본질적 의미를 다시 성찰하는 시간이었다.

무지개팀은
평가를 위한 장학이 아닌,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함께 성장하는 과정으로서의 학습공동체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하였다.



1~7차 모임과의 연계 성과

무지개팀 학습공동체는
1~7차 모임을 통해
관찰 → 배움 읽기 → 실천 → 동료 장학으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8차 모임은
이 흐름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돈하는
전환점이 되는 모임이었다.



알림장 내용의 변화